

# 親盧의 분화... 민주 대통합 진동

노무현 전 대통령 서거 이후 정치적 재기를 모색해왔던 친노(親盧) 세력이 각계 약진하면서 분화 양상을 보이고 있어 故(故)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인 민주진영 대통합에 상당한 진통을 예고하고 있다.

## 당안팎 통합파·독자세력 등 나뉘어 각개약진

## 10월 재보선·내년 지방선거 앞두고 연대 주목

이에 따라 10월 재보선을 앞두고 노 전 대통령의 정치적 영향력이 높은 경남 양산 지역구의 공천을 둘러싸고 민주당과 친노 세력파의 연대 등이 가시화 될 전망이다. 정치권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이 전 총리의 이러한 구상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 수운회관에서 발기인 회의를 치른 '민주통합시민행동'(가칭) 발족 움직임과 연계돼 있다.

이와 함께, 이 전 총리는 친노 그룹 전체를 아우르는 '시민주권모임'(가칭)도 주도하고 있다.

이 모임은 이 전 총리와 한명숙 전 총리가 공동대표를 맡았으며 이해동 목사와 효림 스님, 김근태 전 의원 등 재야인사들이 대거 참여한 반면 친노 신당파는 합류하지 않았다.

이 모임은 '노무현 정신' 계승을 공표 분모로, 노 전 대통령 유지인 시민주권 정치 활동을 펼치기 위해 전국적인 조직 구축도 추진할 계획이다.

시민행동은 발기인대회에 앞서 배포한 초청문에서 "민주주의를 살리고 남북화해를 이끌며 시민에게 재기의 꿈을 줄 수 있도록 함으로써 노무현, 김대중 전 대통령의 유지를 받들고 심각한 위기에 부닥친 민족공동체에 희망의 빛을 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친노 신당파는 내달 20일 창당 발기인 회의를 갖기로 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발기인 모집에 들어가는 등 연대 창당을 목표로 본격적인 행동을 착수했다.

이 같은 친노 세력의 분화 기류 속에서 민주당은 급주 내로 당내 통합 기구를 발족, 본격적인 통합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우선 시민행동과 시민주권모임이 민주당의 통합 협상의 카운터파트가 될 것인가 구체적인 방법과 시기 등을 놓고 차이를 보이고 있어 진통이 예상된다.

민주당 측에서는 민주당을 중심으로 대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이지만 시민행동 등에서는 동등하게 통합이 이뤄져야 한다는 반응이다.

이를 반영하듯, 민주당 박지원 의원은 이날 라디오 방송에 출연, "정당들과 시민사회가 연합해 한나라당과 대결, 승리해야 한다"며 "거대 여당에 대항하려면 민주당이 중심이 되고 소수세력은 민주당과 함께 해야 한다. 분열해서 실패한 실수를 반복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임동욱 기자 tuim@kwangju.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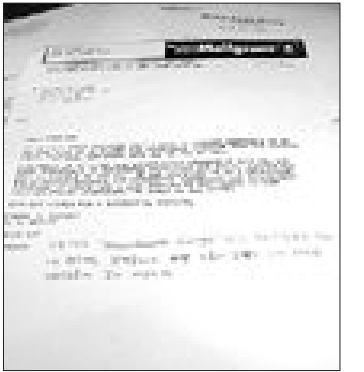
# 1980년대 DJ-케네디 서신 10여통 공개

## 연세대 김대중도서관

'연세대학교 김대중 도서관'은 27일 故(故) 김대중 전 대통령이 1980년대 전두환 군사정부의 정치 탄압을 받아 미국으로 망명했을 당시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과 주고받은 서신 10여통을 공개했다. (사진)

1971년 당시 신민당 대선후보로 미국을 방문한 김 전 대통령에 대해 "당신은 한국의 존 F. 케네디"라며 지지를 표명했던 케네디 의원은 1980년 김 전 대통령이 신군부에 의해 사형선고를 받아 구명운동에 앞장섰고 미국 망명 생활과 귀국 때도 큰 도움을 줬다. 케네디 의원은 1984년 4월26일

김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에서 "당신과 나는 민주와 평화를 지지하는 입장을 공유하고 있다. 한국의 평화적 정권교체를 지지한다"고 썼다. 1985년 총선 직전 귀국을 결심한 김 전 대통령은 84년 6월 답신을 보내 "1984년 말까지 한국으로 귀국하기로 결정했다. 그전에 아내와 함께 당신을 만나고 싶다"는 의견을 전했다.



안전한 귀국을 보장하라며 케네디 의원과 당시 테네시 주 상원의원이었던 앨 고어 전 부통령 등이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보낸 편지, 3·1 민주구국선언 사건으로 김 전 대통령이 수감됐을 때 이희호 여사에게 보낸 영문편지 등도 공개했다. /연합뉴스

# 9選 故 케네디의원 '46년 의정활동' 13위

## 美 장수 의원 순위는

지난 25일(현지시간)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 미국 상원의원은 9번이나 선거에서 연속적으로 승리, 정확히 46년 292일간 상원에서 의정활동을 펼쳐왔다.

그러나 케네디 의원의 이 기록은 미국 의회 역사상 상·하원을 합쳐 장수 의원 기록 10경에도 들지 못한다.

미국 연방 상·하원의 역사에서 최장수 기록은 칼 헤이든이 보유한 56년 319일이다.

그의 이런 최장수 기록은 조만간 깨질 가능성이 높다. 현역 상원의원인 로버트 버드(92) 의원이 25일 현재 56년 256일째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어 그가 앞으로 3개월 정도 의정생활을 계속하면 신기록



지난 25일(현지시간) 별세한 에드워드 케네디(오른쪽·민주·매사추세츠주) 미국 상원의원이 2008년 1월 28일 워싱턴의 아메리칸 대학에서 당시 민주당 대선후보 버락 오바마 상원의원을 위한 집회중 오바마와 함께 미소짓고 있다. /연합뉴스

을 수립하게 된다. 케네디 의원의 46년 의정활동은 상·하원 전체 기록으로는 13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상원으로 국한하면 케네디 의원의 기록은 버드 의원과 스톨름 서먼드(2003년 사망)의 47년 159일에 이어 3위에 해당한다. /연합뉴스

# "DJ남치에 자위대 출신 회사 관여"

## 日 산케이신문 보도

지난 1973년 8월 8일 일본 도쿄에서 발생한 김대중 전 대통령 납치 사건의 일본인 육상자위대 대원 출신들로 구성된 조사회사가 관여했다고 산케이신문이 27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납치를 실행한 당시

중앙정보부가 김 전 대통령의 일본 내 거주지를 확인하기가 어렵자 도쿄에 근거를 둔 조사회사인 '밀리언 자료 리서치'라는 회사에 이를 의뢰했다.

당시 이 회사에 근무하던 쓰보야마(75) 대표는 산케이와의 인터뷰에서 자위대의 정보 분야에서 일하던중

1970년부터 북한 국내 상황과 군사 정보 파악 업무를 담당하게 되면서 평소 알고 지내던 신문기자를 통해 북한 정보에 정통한 전문가를 소개받았다고 말했다.

일본 경찰은 이런 내용에 대해 수사를 했지만 "납치 계획을 알면서 가담한 것이라고 인정할 수 없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신문은 전했다. /연합뉴스

# "탄소배출권 거래소 최적지는 나주 혁신도시"

## 전발연 워크숍 주제발표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는 한국전력거래소가 이전하는 광주·전남혁신도시에 개설되는 것이 경제적으로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27일 전남발전연구원에서 열린 전문가 워크숍에서 한국전력거래소 김용완 부처장은 '탄소시장 전망과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과 관련한 주제발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부처장은 해외동향과 국내 추진

현황 등을 소개한 뒤 "한국전력거래소는 국내 최초 배출권 모의거래 시행과 해외 전력거래소와의 협력체계 구축을 통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을 추진중"이라며 "외국의 경우도 전력거래소를 기반으로 탄소배출권 거래를 담당하고 있는 만큼 국내 탄소배출권 거래소 설립은 광주·전남 혁신도시에 이전될 한국전력거래소에서 개설하는 것이 경제적"이라고 밝혔다.

특히 김 부처장은 "한국전력거래소는 필수요자 중심의 배출권 시장

체제를 구축하고, 배출권 시장과 에너지 시장의 연계 및 조정을 총괄해 온실가스의 효율적인 감축과 산업경쟁력 강화에 유리하다"고 덧붙였다.

주제발표가 끝난 뒤 이뤄진 지정토론과 자유토론 시간에도 참석자들은 "광주·전남지역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전국에서 가장 많고, 신·재생에너지 생산량이 전국대비 29%로 가장 많은 곳인 만큼 탄소배출권 거래소 최적지"라고 강조했다. /최권일기자 cki@kwangju.co.kr

## 대만 신종플루 공포 확산

## 전문가들 "1만명 사망할 수도"

대만의 신종플루 바이러스 감염자가 4만명선에 육박하고 있는 가운데 전문가들이 잇따라 대만인 1만명이 신종플루로 사망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하고 나섰다.

이에 따라 태풍 '모라핏' 후폭풍이 거세게 불고 있는 대만에서는 주가가 폭락하는 등 신종플루 공포가 확산하고 있다.

대만 위생서장(보건부 장관격) 출신인 천젠런 중앙연구원 원사는 26일 신종플루가 절정에 도달할 이번 겨울철에 대만 전체 인구 2천100만 가운데 3분의 1 가량이 신종플루에 걸릴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특히 천 원사는 신종플루 환자 가운데 0.1%인 7천명 가량이 사망할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대만과 홍콩 신문들이 27일 보도했다.

이와 함께 뛰어난 전 질병관리국장은 신종플루 사망자수가 5천명 내지 1만명에 이를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에 대해 양쯔방 위생서장은 "공황상태에 빠질 필요는 없다"면서 "신종플루는 치료될 수 있으며, 11월이면 백신을 이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진화에 나섰다. /연합뉴스

# "F1 경주장 건설 최선 다해달라"

## 전남도의회 F1특위

전남도의회 F1특별위원회(위원장 강우석·영암 2)는 27일 영암군 삼호읍 F1 국제 자동차경주장 건설현장을 방문해 현장 상황을 보고받고 관계자들의 노고를 격려했다.

강 위원장은 이날 현장 상황을 보고 받는 자리에서 "F1대회의 성공개

최를 통해 전남의 운명을 바꾼다는 각오로 경주장 건설에 최선을 다해달라"고 관계자들에게 주문했다.

지난해 3월 구성된 F1 특별위원회는 F1 지원법 제정과 정부 지원 등을 위한 국회교섭활동, 국제포럼 참석 등을 통해 F1 대회의 성공 개최를 적극 지원하고 있다.

특히 정부가 F1대회의 공공성 미흡 등을 이유로 반대 입장을 고수했

으나, 특위가 해외 사례 등을 수집, 이에 대한 반대 논리를 개발해 중앙부처 및 정치권을 설득한 결과 현재 F1지원법 제정이 눈 앞에도 있고, 정부 지원과 함께 프로젝트 파이낸싱(PF), F1경주장 건설 등이 탄력을 받고 있다.

강 위원장은 "F1대회가 전남도민만의 행사가 아닌 국가브랜드를 향상시키는 국제적인 행사인 만큼 경주장 건설은 물론 SOC, 숙박, 홍보 등의 추진에 있어 국가적인 차원의 적극적인 지원을 요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최권일기자 cki@

비데프라자 개업 15주년 기념

# 노비타 비데 세일!!

전국 최저가 판매

생각이 다른 비데 전문가들이 잔치는 실속 있는 표도 선물. 노비타 비데 지금 바로 신청하세요!

KA310L  
399,000원  
219,000원  
대박세일!

노비타비데 전문점 비데프라자 | 0620515-1144

대한민국 대표 기업 1000개 선정

한국 프리마켓 비포

# 아이엘리시아

HAVER 11월 11일 11:11

062-671-1199